

## “겸손의 길”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과 순종의 덕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굴종이나 위선이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됨은 험난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으신 주님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이 질투하며 다투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섬김에 우선된다. 어린아이나 노예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네 개의 짐을 던져버려야 남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첫째, 교만의 짐(the burden of pride)을 던져 버려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어다. 우리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 우리의 교만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작은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우상처럼 왕처럼 처신하고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교만의 탈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 앞에 큰 자로 설 수가 있었다.

둘째, 위선의 짐(the burden of pretense)을 벗어버려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을 숨기려 하는 위선의 짐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사업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우쭐거리며 행세하려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지식은 짧고 경험도 미천한 이가 더 많은 교육과 경륜을 쌓은 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면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인이 못되었으면서 문화인인체 외모를 꾸미고 행세를 하려는 위선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고 빈수레처럼 잡소리만 낸다. 자신이 실제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자신이 정보에 어둡고, 신앙생활 철학도 없는 미숙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문제는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부패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안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될 일도 한다고 핑계를 댈다. 만물보다 거것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참회하고 부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감추고 목을 곧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올 때 사회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인위적인 짐(the burden of artificiality)을 벗어 던지라. 외식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강한 체하는 진실이 결여된 이에겐 겸손이 없다. 인위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속이는 것과 악은 소멸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넷째, 자기 성취를 위한 투쟁의 짐(the burden of self-struggle)을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만에서 흘러나온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다르다.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겸손해진다. 교만, 위선, 인위적 꾸밈,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할 때 따르기 어려운 겸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게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2년 11월 17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분당 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대면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 중계되는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지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서울교회 성도 되시기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822\\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822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전도사</b> 박미라 안용곤 <b>준전임전도사</b> 강남희 <b>교육전도사</b>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b>선 교 사</b> 권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기에),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홍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경상진·홍성임(팔리우),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b>전임목사</b> 조동수 <b>합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담임목사 Senior Pastor	<b>이 종 윤</b> Lee Jong-Yun, Ph. D., D.D., D. D.  <b>손 달 익</b> Rev. Son , Dal-ig

## “ 하나님께 필요한 분이십니까? ”

■ 창 24:10-14  
선교사 리빙스턴의 사역, 고대 교부 제롬의 라틴어 Vulgata 역 편찬 등 위대한 사역에는 꼭 필요한 무명의 조력자들이 있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필요한 분이냐? 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대를 이을 머느릿감을 찾는 중차대한 일을 자기 집 늪은 중에게 맡겼고, 그 중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그는 일개 이름 없는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었다. 무명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그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1. 신뢰감이 있는 삶  
2절에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라 했으니 매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신뢰는 두 가지를 기초로 형성된다. 첫째는 능력, 둘째는 도덕성, 정직함이다. 10절에 ‘이에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앙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주신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2. 기도하는 사람  
이 종은 먼 길을 여행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한다. 이 종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 일보다 앞선 기도이다. 기도가 일보다 앞서야 한다. 둘째, 깊은 생각과 논리적 생각이 포함된 기도이다. 신앙은 반지성/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과 논리는 죄의 영향으로 훼손되고 왜곡되어 있기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겨워하신다. 15절에 ‘말을 마치 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했다. 이 노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사 65:24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3.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자기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음식부터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행 20:24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자기 사명을 위해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잠 18:9에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고 했지만 잠 22:29에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자기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신뢰, 기도, 헌신의 사람이다. 이런 삶의 전형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맡기신 일의 수행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7: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0(시 116)...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10(34)...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24:10-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하나님께 필요한 분이십니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310(410)...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25:4-5 ..... 인 도 자  
 찬 송 ..... 183(172) ..... 다 합 께  
 기 도 ..... 장상국 집사  
 성 경 ..... 행 1:1-5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주님의 당부” ..... 설 교 자  
 \* 찬 송 ..... 53(59)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이은희7 권사 II부: 김미자 권사  
 성 경 ..... 행 1:6-1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교회의 사명”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전재홍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임시당회 / 22일(주일) 1부 예배 후 402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 장 례

1. 故 서은원 권사(12교구 박경민 성도의 모친, 정성우 집사의 장모) / 8월14일(토) 별세, 16일(월) 발인
2. 故 조채금 성도(11교구 하숙 권사의 모친, 오치열 장로의 장모) / 8월16일(월) 별세, 18일(수)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따라서 수요일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759명	412명	2,171명	426명	2,120명

## 🌳 지금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사단의 방해는 극심해진다. 유다의 히스기야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산당까지 철거했지만 앗수르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황폐케 되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성전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며 타협하려 했으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해 보았지만 찌르는 가시처럼 더욱 괴롭게 하였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고야 비로소 그는 산헤립의 능욕의 편지를 들고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다.

절망의 순간은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이때야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극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다.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구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